

10·29 진실버스, 전주에 오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이태원참사 150일 제인 지난 27일 서울과 인천에서 출발한 '10·29이태원참사 진실버스'가 29일에는 전주에 도착했다.

10·29이태원참사 전북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 풍남문광장에 있는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태원 참사 이후 특수본 수사는 이른바 ‘꼬리자르기’로 끝났고 국정조사도 출석기관들의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반쪽짜리 마무리 됐다”며 “정부는 참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를커녕 면담 요청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故박기영 씨의 어머니 최선미씨는 “오후 6시 34분 최초 신고 때부터 경찰이 그 신고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마약 수사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했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29일 전북 전주시 전주풍남문광장 이태원 참사 전주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사 이후 특수본 수사 ‘꼬리자르기’로 끝나 정부, 참사 책임 인정 안하고 사과도 안해”

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가 아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 아들, 딸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며 정해 그 날의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

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참사 대책위 이기현 상황실장은 “이제 이태원참사를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고 경찰도 조사를 했다고 하니 해결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아직 의혹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며 “여전히 의혹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해 이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와 호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경 전주에 도착한 진실버스는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출근 선전전을 열고,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점심 서명전을, 오후 6시 34분경 전주 분향소 앞에서 시민추모제를 열었다

한편 '10·29 이태원참사 진실버스'는 27일 서울, 인천을 시작으로 청주, 전주, 광주, 부산, 제주, 대구, 대전, 수원 등을 거쳐 4월 5일 서울광장 분향소로 돌아갈 예정이다. /뉴스

“학폭 예방 종합대책 수립 피해학생 보호 초점 뒤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가해학생 처벌 등 과정서
학부모·법률적 개입 과도하게 이뤄지지 못하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전국민적 염려가 증가하고 있는 자국의 현실에 대해 깊이 성찰함과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 및 교육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29일 협의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2차 가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피·가해학생 분리조치를 실질적이고 실효성있게 재설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학교폭력의 유형 및 사안의 경중을 감안한 사안별, 개인별, 발달단계

별 맞춤형 대책이 수립돼야 하며,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초등학교 1학년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새로이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으로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 학교폭력 발생 시 처벌과 병행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가해학생 처벌 및 화해조정 과정에서 학부모 및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은성기자

“尹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후보 선택해 주시길 바라”

민중 정청래 최고위원, 우종삼 군산시의원 후보 지원 유세
‘굴욕적 한·일외교 규탄, 실제 보고’ 전북지역 당원교육 참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군산지역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당 소속 우종삼 후보(군산시) 지원 유세에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29일 신영대 의원(군산), 우종삼 후보 등 민주당원들과 함께 군산시 소룡동 인근 상가를 방문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최고위원은 후보 지지 연설을 통해 “최근 굴욕적 한일외교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다시 국가적 자존심을 짓밟히는 상처를 받고 있으며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은 우리 국민의 상처받은 마음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행태가 국제 사회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은 폭도 주권과 일체의 강제징용 문제를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무능과 굴욕의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더이상 현 정권의 무능함과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 가혹한 독재 정치를 펼치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는 군산시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29일 군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우종삼 군산시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다.

우종삼 후보를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지원유세를 마친 정 최고위원은 김재호 자리를 옮겨 윤석열 검사정권의 굴욕적 한·일외교를 규탄하고 실체를 보고하는 전북지역 당원 교육에 참석했다.

민주당 김제지역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도당이 주관한 이날 당원교육은 김제시 노인회관에서 열렸으며 고민정 최고위원과 정청래 최고위원이 강사로 나섰다. /뉴스

장수 천천면 배수개선사업 국비 57억 확보

민중 안호영 의원, 진안 동향면 배수개선 국비 50억도 확보

진안군 동향면(대량지구)과 장수군 천천면(봉덕지구)의 배수 개선사업 신규착수 대상지로 선정되어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진안군 동향면(대량지구)과 장수군 천천면(봉덕지구)이 2023년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50억원과 57억원을 각각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 위치는 진안군 동향면의 경우 대량리, 자신리, 능굴리, 학선리 일원, 장수군 천천면의 경우 봉덕리,



삼고리, 남양리 일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동향면과 천천면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매년 농경지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농민들은 농작물 침수 및 재해 우려 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고통을 호소해 왔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도와 농림부, 기재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상습 침수 지역 해소를 위해 동향면 배수개선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힘을 쏟아왔다.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대량지구(진안군 동향면)와 봉덕지구(장수군 천천면)는 올해 세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진안=우태민기자·장수=고관호기자

전주시설공단, 전주를

재선거 차량 투입 편의 지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4월 5일 치러지는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교통약자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해 이차량 택시 무료 운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공단은 사전투표 기간인 이달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권을 가진 교통약자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차량 택시로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왕복 이동을 지원한다.

투표가 실시되는 다음 달 5일까지도 교통약자 투표권자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로는 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 모두이며, 투표 확인증을 제시하면 운임을 받지 않는다.

사전투표일 또는 본투표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지콜센터(063-271-2727)로 연락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태 기자

김정수 도의원, 재향군인회

공로패 수상받아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은 은우위원장)이 29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은 “김정수 의원이 평소 확고한 안보관으로 사회 공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은 물론 향군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치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정수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국가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전북도와 전북도민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도민의 안전과 도정에 적극 협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1952년 창립한 재향군인회는 군복무를 마친 남녀 예비역 장병들이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기업환경협의회 회의 기업은 효율적인 환경관리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전북기업환경협의회가 29일 전주페이퍼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건의사항 및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업의 범위 ‘농축산 가공·저장·유통·판매업’으로 확대

민중 윤준병 의원, 식량자급규정 보강법 대표발의
밀·콩 법률상 공공비축양곡으로 승격 규정 법안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농업’의 정의에 농림축산업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을 포함시키고 식량자급 관련규정을 보강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9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농업에서 식량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이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업이 6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이 ‘농업’의 정의에서 누락돼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식량위기의 시대를 맞아 식량자급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므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 책을 수립함에 있어 수입보다는 국내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

이들 개정안은 농업의 개념을 ‘농작물재배업·축산업 임업 및 이들 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

업’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규정되어 있는 밀과 콩을 쌀과 같이 법률상의 공공비축양곡으로 승격시켜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에는 양정숙·김성주·양경숙·김용민·소병훈·김철민·민형배·서영교·장철민·김성환·여기구·위성근 의원이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양정숙·김성주·양경숙·김용민·김철민·민형배·신정훈·위성근·김태년·양이원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읍=김태환기자

“임정업 후보와 단일화 없다”

김호서 전주를 후보

4·5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호서 후보(무소속)가 “임정업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고 밝혔다.

김호서 후보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가치관과 정체성이 전혀 다른 임정업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단일화 논란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폐간에 회자하고 있는 재단일



화 헛소문은 민심에 대한 배반이며 제가 이번 선거를 멈춘다면 전주 시민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이런 소문에 동의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4·5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김 후보를 포함해 총 6명이다. /특별취재반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최중오)가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회 임시회의 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의원 발의 안건은 총 17건(조례안 16건, 규칙안 1건)으로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두드러졌다. /익산=이재훈기자